

배포일시	2019. 7. 19.(금) 11: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보국 예보분석팀	담당자	팀장 이경희 주무관 우진규	전화번호	02-2181-0932 02-2181-0936

## 제5호 태풍 '다나스' 현황과 전망

-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 19일(금)~20일(토) 한반도 영향
- ※ 19일 밤~20일 낮 제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
- ※ 남부지방 중심 매우 많은 비(제주도산지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500mm 이상)



제5호 태풍 다나스 예상 경로 및 주변 기압계 모식도

### [ 태풍 현황 ]

- 현재(19일 09시)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중국(상하이)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현재 중심기압은 990hPa, 크기는 소형이며, 최대풍속은 시속 86km(초속 24m)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태풍 경로와 강수 전망 ]

□ 태풍 ‘다나스’는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하여 19일 오후 제주도 남서쪽해상으로 진입하여, 20일 새벽 제주도서쪽해상을 지나, 오전에 전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20일 밤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TD)로 약화될 것입니다.

○ 앞으로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현재(19일 10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대는 오후(15~18시)부터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고, 20일 오전(09~12시)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 이후 21일 새벽(00~03시)부터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오전(06~09시)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은 낮(12시)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19일부터 20일 밤(24시)까지)

-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150~300mm(많은 곳 500mm 이상, 제주도산지 700mm 이상)
- 강원영동(20일), 전라도와 경상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 50~150mm(많은 곳 전남과 경상도 200mm 이상)
- 서울·경기도(20일), 강원영서(20일), 충청도, 울릉도·독도: 10~70mm

## [ 태풍 특징 및 유의사항 ]

- 이번 태풍은 오늘(19일) 새벽까지 바닷물의 온도가 29도 이상의 높은 구역을 통과하면서 발달하였으나, 오후부터 26도 이하의 구역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일(금)~20일(토)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 특히, 현재(19일 10시)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는 100~3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9일 밤~20일 낮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제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누적강수량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으니, 산사태,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0일까지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5m 이상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물결이 최고 9m 이상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 저지대는 해수 범람이 우려되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 태풍 변동성 ]

-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 후, 빠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동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향후 장마 및 강수 전망(29일 까지) ]

- 태풍이 통과한 뒤, 장마전선은 약해져 21일부터 장마는 일시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24일(수)** 경 북서쪽으로부터 다시 발달하는 장마전선이 접근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26일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 또한, **22일(월)** 오후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